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나의 제언

의과대학 의학과 명예교수 지 제 근

1. 용어의 정리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의학전문대학원’이란 용어가 이제 일반인들에게 익숙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것이 기존의 의과대학과 어떻게 다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 졸업생(학사학위 소지자)이 의과대학에 다시 입학하여 4년 공부하여 의사국가시험을 쳐서 의사가 되는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전문’이란 용어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우선 일반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것이어서 ‘대학원’이라고 한다면 ‘의학대학원’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구미식으로는 ‘medical school’ 하면 될 것을 ‘medical specialty graduate school’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부적절한 용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은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원’이라고 할 수 없다. 의사가 되기 위한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이 어떻게 의학의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전공’해야 하는 ‘대학원’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은 그 성격상 ‘의학대학원’이 아니라 ‘의과대학원’이라야 용어가 성립된다. 학술대학원이 아니라 직업대학원(professional school)이기 때문이다.

2. 우리나라 의학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었나

그렇다고 전혀 새로운 교육제도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 의학교육제도에 문제가 있었나 하면 그 대답은 대체로 아니다. 즉 한번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성격의 문제는 의학계에서 제기된 적이 없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졸업생은 충분한 기간의 의학교육을 받고 거의 대부분이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훌륭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 의사들이 외국의 의사에 비해 열등하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으며, 오히려 수천 명의 한국 의사들이 의료선진국인 미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그곳에서 진료 혹은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미국의사면허를 위한 응시자격에서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연한이나 교과목이 문제된 적이 없다. 오히려 의예과에서 의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생물, 물리 등의 학점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 적은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의학교육제도가 되기까지 우리 정부도 또 의학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즉 정규 의학교육을 받지 않고도 의사시험에 합격만 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의사검정시험 제도를 과감히 없앴다. 또 무의촌 문제 때문에 한정된 지역에서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주던 한지의사(限地醫師)제도도 없앴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제대로 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의학교육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의사의 수요공급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의과대학 수를 갑자기 늘린 것과, 의예과 교육이 부실하다는 것이었다. 1960년까지 8개이던 의과대학이, 1970년까지 4개가 늘었고, 1990년에서 2003년 사이에는 11개가 신설되어 의과대학 수가, 한의과대학을 제외하고도 현재 41개가 되었다. 특히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일부 의과대학에서 의학의 기본인 기초의학을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이상과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의과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 중 최우수 학생이 아니면 입학할 수 없을 만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진료와 직관된 임상교육에서만은 대학 간의 큰 차이 없이 일정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의학전문대학원은 과연 필요한가

이미 지적한대로 현재의 우리나라 의학교육제도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언급된 문제점들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의학전문대학원의 설치로 없었던 새로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이것은 2년의 의예과를 거쳐 4년의 본과를 의미한다. 2년의 예과과정에서는 본과에서 필요한 예비공부를 함으로써 본과에서의 충실한 의학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이전에는 우리나라 의사의 대부분은 4년제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의사시험을 거쳐 의사가 되었다. 정부 수립 후 모든 의과대학 수업 연한이 일괄 6년으로 되었다. 이것은 국제적 의학교육의 표준에 맞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내실을 다지고 훌륭한 졸업 후 교육과 의학연구에 집중하여 우리 의학을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는 일이 남았고, 가능성이 보이고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의예과 2년을 없애고 의학과 연관되었든 아니 되었든 전공과 상관없이 학사 학위만 있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주어 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하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이른바 '의사공부'가 6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쓸만한 의사'가 되려면 졸업 후에 적어도 2년 이상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 자체가 교육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학교육은 현재의 6년에서 2~5년을 더

해 8~11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2년을 더늘여 10~13년으로 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여기에다 선진국에는 해당되지 않는 병역 3년을 추가하면 어떻게 되겠나.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눈에 보인다.

4.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전망

정부가 학문 외적 이유로 강권하다시피 도입된 ‘의학전문대학원’은 다행이 일부 의과대학에서만 채택했고, 일부는 부분적으로만 채택하거나,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2010년에 이 제도에 대한 총괄 평가가 있을 예정이라 한다. 최종 평가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편견 없는 훌륭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인증 없이 누구든지 시험에만 합격하면 하루 아침에 ‘법조인’이 되는 제도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해 왔다. 그런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적절한 비교일지는 몰라도 의사시험에 합격만 하면 누구라도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우리는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을 것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이와 같이 의학계나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도이다.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추진 과정에서 경험한 비생산적이고 무책임한 과정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예정되어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총괄 평가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 토의하고 결정하기 바란다.

국가적인 지적 자산 축적을 위한 제언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명예교수 이 인 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날로 다르게 연장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단순히 평균 수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도 높아져서, 오늘의 70대는 과거 우리 선친 세대가 환갑을 맞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활동적임을 모두